

#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2년 2월호

## Contents

〈통계 요약〉 .....	1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2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	5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	9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	10
III.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	13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	15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18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	23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	26



## 〈통계 요약〉

## 한일 무역의 2022년 1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55,321	15.2	60,155	35.3	-4,834
일본 부분	2,594	15.9	4,454	12.8	-1,860
일본 비중	4.7		7.4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1월 상황

	2021년 1월	2022년 1월	증감률
수출(백만¥, %)	5,779,567	6,331,799	9.6
수입(백만¥, %)	6,106,730	8,525,257	39.6
수지(백만¥, %)	-327,163	-2,193,458	570.4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2월 25일)에 근거하여 작성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21년 12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일본 전체(억¥)	4,743	1,750	13,744	2,887	18,134	2,955
한국 부분(억¥)	108	88	34	169	51	56
한국 비중(%)	2.3	5.0	0.2	5.9	0.3	1.9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12월 8일, 2022년 1월 12일, 2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1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1년1월	2022년1월	증감률		2021년1월	2022년1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58,397	81,851	40.2	전체	46,522	17,800	-61.7
방한 일본인	1,299	1,162	-10.5	방일 한국인	2,535	1,300	-48.7
일본인 비중	2.22	1.42		한국인 비중	5.45	7.30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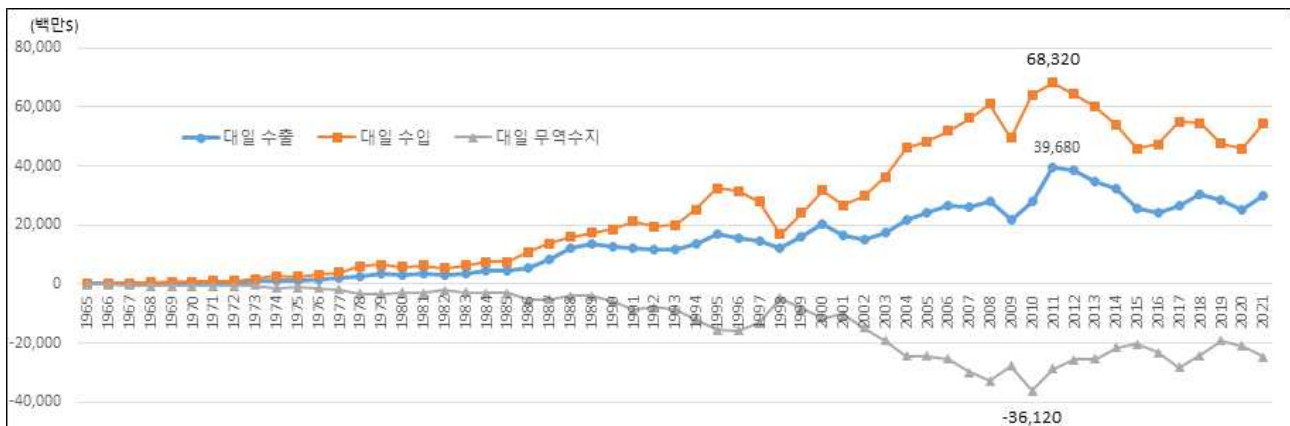
## I. 일본 무역 동향

### 1. 한일 무역 동향

####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고,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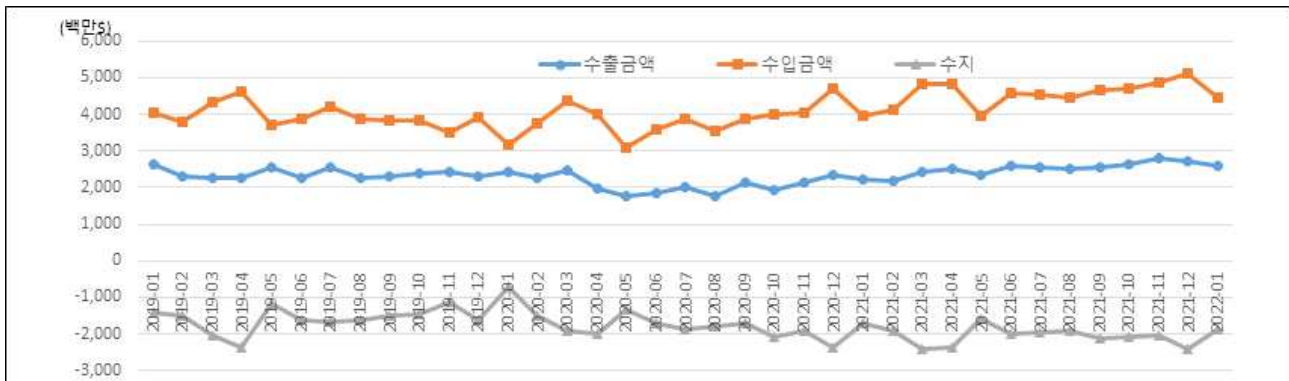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 이후 통계에서 한 해도 예외 없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2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6.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2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2021년에는 대일 수출(300.6억 달러)과 수입(546.4억 달러)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수입 증가액이 수출 증가액보다 더 커서 대일 무역적자(245.8억 달러)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COVID-19 발생 이후 대일(對日) 수출 수입이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22년 1월에는 수출 수입 모두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대일 수출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2년 1월에는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 대일 수입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2년 1월에는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5월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또는 정체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2년 1월에는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 □ 한일 무역의 2022년 1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2년 1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일(對日)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5.9% 증가하였고, 대일 수입은 동(同) 12.8% 증가하였음

〈표1〉 한일 무역의 2022년 1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55,321	15.2	60,155	35.3	-4,834
일본 부분	2,594	15.9	4,454	12.8	-1,860
일본 비중	4.7		7.4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2년 1월에 한국전체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5.2% 증가하여 553.2억 달러가 되었고, 대일 수출은 동(同) 15.9% 증가하여 25.9억 달러가 되었음
- 2022년 1월에 한국전체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35.3% 증가하여 601.6억 달러가 되었고, 대일 수입은 동(同) 12.8% 증가하여 44.5억 달러가 되었음

- 2022년 1월에 한국 전체 무역수지는 48.3억 달러 적자였고, 대일 무역수지는 18.6억 달러 적자였음
  - 2022년 1월에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경우는 4.7%였고, 수입 경우는 7.4%였음
- <표2> 및 <표3>은 2022년 1월 대일(對日) 수출 및 수입 각각 MTI 코드 2단위 기준 상위 10개 품목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경우는 7개 품목이, 수입 경우도 7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lt;표2&gt; 한국의 2022년 1월 대일(對日) 수출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1년 1월(백만\$, %)			2022년 1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2,237	-8.1	-1,711	2,594	15.9	-1,860
1	광물성연료	321	-30.8	272	437	36.1	268
2	철강제품	338	9.6	16	377	11.4	-225
3	정밀화학제품	180	-3.3	-156	247	37.3	-86
4	석유화학제품	107	-28.7	-127	200	86.6	-99
5	전자부품	152	15.2	-483	177	16.1	-536
6	산업용전자제품	129	6.9	-125	113	-12.3	-71
7	금속광물	138	33.3	63	91	-34.3	-50
8	농산물	87	0.2	69	87	0.3	66
9	산업기계	63	-0.1	-70	80	27.4	-49
10	기계요소공구및금형	78	-10.3	-22	77	-0.9	-24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lt;표3&gt; 한국의 2022년 1월 대일(對日) 수입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1년 1월(백만\$, %)			2022년 1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3,947	24.8	-1,711	4,454	12.8	-1,860
1	전자부품	634	38.6	-483	713	12.4	-536
2	철강제품	322	-18.0	16	602	87.3	-225
3	정밀기계	670	199.9	-630	444	-33.7	-377
4	정밀화학제품	336	9.9	-156	333	-0.8	-86
5	석유화학제품	234	-5.8	-127	299	27.9	-99
6	수송기계	128	-18.4	-61	284	121.7	-224
7	플라스틱제품	186	11.4	-125	190	1.9	-124
8	산업용전자제품	254	32.7	-125	184	-27.7	-71
9	기초산업기계	170	21.6	-105	172	1.3	-102
10	광물성연료	49	56.5	272	169	245.7	268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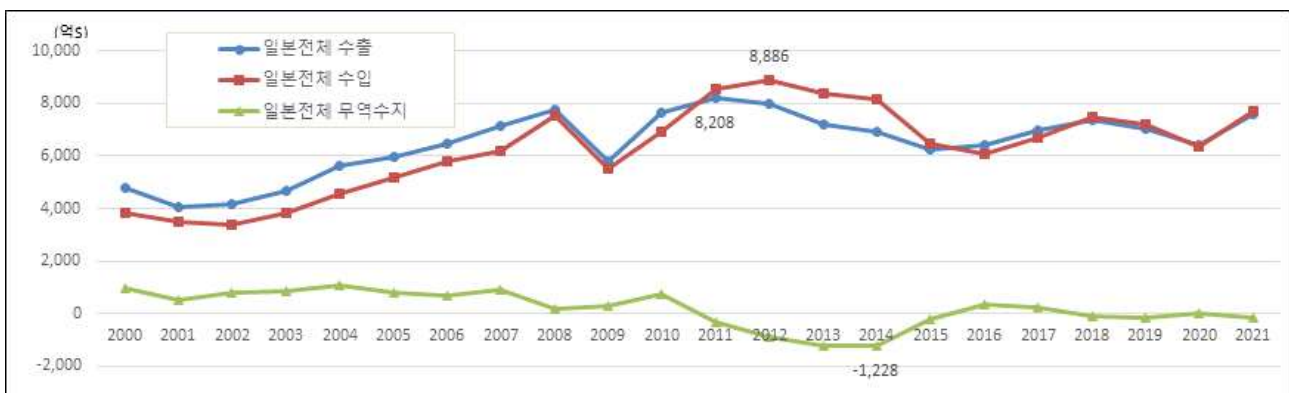
- 수출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석유화학제품(86.6%), 정밀화학제품(37.3%), 광물성 연료(36.1%) 등 7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금속광물(-34.3%), 산업용전자제품(-12.3%) 등 3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광물성연료(245.7%), 수송기계(121.7%), 철강제품(87.3%) 등 7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정밀기계(-33.7%), 산업용전자제품(-27.7%) 등 3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 □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3>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 2016년과 2017년 흑자, 2018년과 2019년 적자, 2020년 흑자, 2021년 적자로 나타남
- 2020년 일본전체 수출은 6,399억 달러, 수입은 6,357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무역수지는 42억 달러 흑자였음
- 2021년 일본전체 수출은 7,586억 달러, 수입은 7,716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무역수지는 130억 달러 적자였음

## □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1월 상황

- <표4>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2년 1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적자폭이 크게 확대됨

&lt;표4&gt;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1월 상황

	2021년 1월	2022년 1월	증감률
수출(백만¥, %)	5,779,567	6,331,799	9.6
수입(백만¥, %)	6,106,730	8,525,257	39.6
수지(백만¥, %)	-327,163	-2,193,458	570.4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2월 25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철강, 광물성연료, 반도체등전자제품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9.6% 증가하여 6조 3,318억 엔이 되었음
- 수입은 원조유(原粗油), 석탄, 액화천연가스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9.6% 증가하여 8조 5,253억 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는 전년동월 3,272억 엔 적자에서 당월 2조 1,935억 엔 적자로 확대되었음
- <표5>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2년 1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부 감소 지역도 있지만 수출 수입 모두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56.5%, 수입의 49.1%를 차지하였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아시아 무역수지는 6,065억 엔 적자였음
  - 중국은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의 18.4%, 수입의 25.0%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9,616억 엔이었음
  - 홍콩은 수출의 4.9%, 수입의 0.2%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홍콩 무역흑자는 2,891억 엔이었음
  - 대만은 수출의 7.0%, 수입의 4.2%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흑자는 806억 엔이었음
  - 한국은 수출의 8.0%, 수입의 3.8%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흑자는 1,826억 엔이었음
  - 미국은 수출의 17.6%, 수입의 9.2%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3,349억 엔이었음
  - 서유럽 전체에 대해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독일은 수출의 2.7%, 수입의 2.9%를 차지하였음
  - 영국은 수출의 1.5%, 수입의 0.8%를 차지하였음



〈표5〉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1월 지역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지금액	증감률
<b>총액</b>	<b>6,331,799</b>	<b>100.0</b>	<b>9.6</b>	<b>8,525,257</b>	<b>100.0</b>	<b>39.6</b>	<b>-2,193,458</b>	<b>570.4</b>
<b>아시아</b>	<b>3,577,360</b>	<b>56.5</b>	<b>6.3</b>	<b>4,183,829</b>	<b>49.1</b>	<b>29.2</b>	<b>-606,469</b>	<b>-</b>
중국	1,166,593	18.4	-5.4	2,128,239	25.0	23.7	-961,646	97.2
홍콩	307,843	4.9	4.9	18,705	0.2	93.0	289,138	1.9
대만	441,964	7.0	6.7	361,408	4.2	36.9	80,556	-46.3
대한민국	507,268	8.0	18.1	324,623	3.8	26.9	182,645	5.2
싱가포르	187,151	3.0	23.2	93,728	1.1	31.7	93,423	15.6
태국	287,567	4.5	9.5	259,721	3.0	22.0	27,846	-44.1
말레이시아	137,297	2.2	4.1	240,053	2.8	48.3	-102,756	242.8
인도네시아	130,407	2.1	50.2	235,057	2.8	66.2	-104,650	91.6
필리핀	103,677	1.6	33.4	104,052	1.2	29.6	-375	-85.4
베트남	139,834	2.2	0.7	261,876	3.1	25.4	-122,042	74.3
인도	99,582	1.6	3.0	74,185	0.9	50.6	25,397	-46.4
<b>대양주</b>	<b>226,349</b>	<b>3.6</b>	<b>55.0</b>	<b>785,626</b>	<b>9.2</b>	<b>93.3</b>	<b>-559,277</b>	<b>114.8</b>
호주	166,378	2.6	39.7	728,068	8.5	97.3	-561,690	124.7
뉴질랜드	27,939	0.4	46.4	24,528	0.3	47.7	3,411	38.2
<b>북미</b>	<b>1,183,549</b>	<b>18.7</b>	<b>10.4</b>	<b>910,786</b>	<b>10.7</b>	<b>32.7</b>	<b>272,763</b>	<b>-29.2</b>
미국	1,116,947	17.6	11.5	782,047	9.2	33.4	334,900	-19.3
캐나다	66,602	1.1	-5.1	127,959	1.5	29.0	-61,357	111.2
<b>중남미</b>	<b>243,119</b>	<b>3.8</b>	<b>5.7</b>	<b>345,693</b>	<b>4.1</b>	<b>44.0</b>	<b>-102,574</b>	<b>912</b>
<b>서유럽</b>	<b>715,782</b>	<b>11.3</b>	<b>14.4</b>	<b>994,750</b>	<b>11.7</b>	<b>25.3</b>	<b>-278,968</b>	<b>65.6</b>
독일	173,270	2.7	9.4	245,090	2.9	17.2	-71,820	41.7
영국	96,086	1.5	16.5	66,831	0.8	18.7	29,255	11.6
프랑스	64,246	1.0	25.0	98,869	1.2	14.8	-34,623	-0.2
네덜란드	111,444	1.8	10.7	42,468	0.5	50.6	68,976	-4.8
이탈리아	44,129	0.7	12.6	116,970	1.4	32.1	-72,841	47.5
벨기에	69,900	1.1	29.2	45,798	0.5	59.1	24,102	-4.9
스위스	31,792	0.5	-19.3	82,797	1.0	26.6	-51,005	96.1
스웨덴	9,388	0.1	-21.0	43,228	0.5	73.0	-33,840	158.3
아일랜드	17,871	0.3	91.3	45,028	0.5	-44.1	-27,157	-61.8
스페인	21,784	0.3	22.4	77,992	0.9	164.8	-56,208	382.1
<b>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b>	<b>146,532</b>	<b>2.3</b>	<b>15.4</b>	<b>253,766</b>	<b>3.0</b>	<b>79.6</b>	<b>-107,234</b>	<b>651.5</b>
<b>중동</b>	<b>160,655</b>	<b>2.5</b>	<b>13.5</b>	<b>920,208</b>	<b>10.8</b>	<b>80.8</b>	<b>-759,553</b>	<b>106.7</b>
<b>아프리카</b>	<b>78,451</b>	<b>1.2</b>	<b>8.9</b>	<b>130,593</b>	<b>1.5</b>	<b>43.4</b>	<b>-52,142</b>	<b>174.1</b>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2월 25일)에 근거하여 작성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2년 1월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 9개 품목 중 수출 경우는 7개 품목이, 수입 경우는 8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는 광물성연료(112.1%), 원료별제품(20.0%) 등 7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원료품(-0.7%), 수송용기기(-0.5%) 2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 수출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원료별제품(2.2%), 기타(2.2%), 전기기기(1.8%), 광물성연료(1.4%)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는 광물성연료(83.3%), 원료품(50.6%), 원료별제품(49.6%) 등 8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수송용기기(-8.8%) 1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광물성연료(15.0%), 화학제품(5.2%), 전기기기(5.1%)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lt;표6&gt;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1월 품목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총액	6,331,799	100.0	9.6	9.6	8,525,257	100.0	39.6	39.6
1 식료품	67,204	1.1	2.2	0.0	657,304	7.7	32.7	2.7
2 원료품	90,752	1.4	-0.7	0.0	625,753	7.3	50.6	3.4
3 광물성연료	152,808	2.4	112.1	1.4	2,017,021	23.7	83.3	15.0
4 화학제품	834,248	13.2	5.8	0.8	947,403	11.1	50.6	5.2
5 원료별제품	759,005	12.0	20.0	2.2	816,672	9.6	49.6	4.4
6 일반기계	1,158,537	18.3	7.1	1.3	730,054	8.6	16.6	1.7
7 전기기기	1,164,969	18.4	9.8	1.8	1,445,687	17.0	27.4	5.1
8 수송용기기	1,205,855	19.0	-0.5	-0.1	272,448	3.2	-8.8	-0.4
9 기타	898,421	14.2	16.1	2.2	1,012,916	11.9	17.7	2.5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2월 25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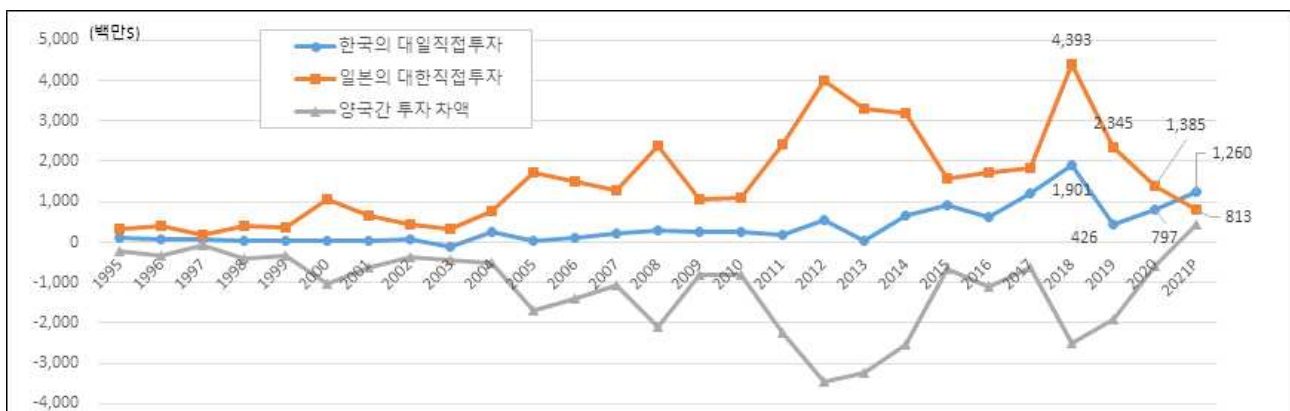
##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는데, 2021년에는 역전되었음

<그림4>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는데, 2021년 경우도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한일간 갈등 및 COVID-19 등으로 연속적으로 전년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음
- 2021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추정치)는 12.60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287.94억 달러의 4.4%를 차지하였음
- 2021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추정치)는 8.13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1,487.19억 달러의 0.5%를 차지하였음

##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7>은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7>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21년 12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일본 전체(억¥)	4,743	1,750	13,744	2,887	18,134	2,955
한국 부분(억¥)	108	88	34	169	51	56
한국 비중(%)	2.3	5.0	0.2	5.9	0.3	1.9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12월 8일, 2022년 1월 12일, 2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1년 11월 1조 3,744억 엔에서 12월 1조 8,134억 엔으로 증가하였음
- 한편,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11월 34억 엔에서 12월 51억 엔으로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차지하는 한국 비중은 0.2%에서 0.3%로 증가하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1년 11월 2,887억 엔에서 12월 2,955억 엔으로 증가하였음
- 한편,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1년 11월 169억 엔에서 12월 56억 엔으로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차지하는 한국 비중은 5.9%에서 1.9%로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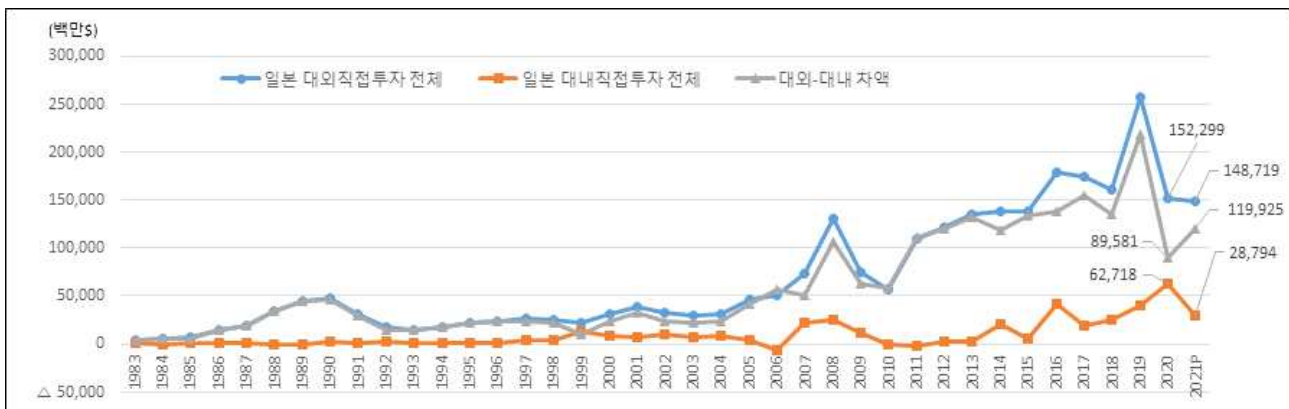
##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 □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20년에는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1,523억 달러로 되었지만, 대내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상최대인 627억 달러에 달했으며, 대외-대내 차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여 896억 달러로 되었음
- 2021년(추정치)에는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1,487억 달러, 대내직접투자도 전년대비 감소하여 288억 달러로 되었고, 대외-대내 차액은 전년대비 증가하여 1,199억 달러로 되었음

〈그림5〉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8>은 2021년 12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18,134억 엔이었으며,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2,955억 엔이었음
-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18,134억 엔(실행 57,170; 회수 39,036)으로 플러스였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지역별로 아시아(41.5%), 북미(28.4%), 유럽(25.8%), 아프리카(2.3%), 중동(1.3%), 중남미(1.2%)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고, 대양주는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미국(5,245억 엔), 싱가포르(4,035억 엔), 룩셈부르크(1,899억 엔) 등에 순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음
-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2,955억 엔(실행 35,481; 회수 32,526)으로 플러스였음
  - 대내직접투자 순투자 경우는 지역별로 유럽(53.9%), 아시아(48.0%), 대양주(41.7%) 등

으로부터의 투자가 많았으며, 북미 경우는 순투자가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 대내직접투자 플러스 순투자가 큰 곳은 영국(1,262억 엔), 호주(976억 엔), 중국(729억 엔) 등이었음

〈표8〉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2021년 12월 상황

	대외직접투자(억 엔, %)				대내직접투자(억 엔, %)			
	실행 Execution	회수 Withdrawal	순투자 Net	순투자 구성비	실행 Execution	회수 Withdrawal	순투자 Net	순투자 구성비
<b>합계</b>	<b>57,170</b>	<b>39,036</b>	<b>18,134</b>	<b>100.0</b>	<b>35,481</b>	<b>32,526</b>	<b>2,955</b>	<b>100.0</b>
<b>아시아</b>	<b>14,312</b>	<b>6,795</b>	<b>7,517</b>	<b>41.5</b>	<b>9,002</b>	<b>7,583</b>	<b>1,419</b>	<b>48.0</b>
중국	2,440	642	1,798	9.9	1,889	1,160	729	24.7
홍콩	936	356	580	3.2	1,059	831	228	7.7
대만	384	113	271	1.5	108	84	24	0.8
한국	114	63	51	0.3	91	36	56	1.9
싱가포르	8,488	4,453	4,035	22.3	4,844	4,729	114	3.9
태국	507	246	261	1.4	941	700	241	8.2
인도네시아	480	447	33	0.2	29	17	11	0.4
말레이시아	163	84	79	0.4	30	25	4	0.1
필리핀	179	64	115	0.6	—	0	0	0.0
베트남	327	229	98	0.5	2	—	2	0.1
인도	180	58	123	0.7	0	0	-1	0.0
<b>북미</b>	<b>25,265</b>	<b>20,120</b>	<b>5,145</b>	<b>28.4</b>	<b>12,161</b>	<b>13,855</b>	<b>-1,694</b>	<b>-57.3</b>
미국	24,737	19,492	5,245	28.9	12,153	13,855	-1,702	-57.6
캐나다	528	628	-100	-0.6	7	—	7	0.2
<b>중남미</b>	<b>1,125</b>	<b>907</b>	<b>219</b>	<b>1.2</b>	<b>454</b>	<b>232</b>	<b>223</b>	<b>7.5</b>
멕시코	176	141	35	0.2	3	—	3	0.1
브라질	54	36	18	0.1	—	—	—	—
케이만제도	224	82	142	0.8	353	211	142	4.8
<b>대양주</b>	<b>163</b>	<b>254</b>	<b>-91</b>	<b>-0.5</b>	<b>1,692</b>	<b>462</b>	<b>1,231</b>	<b>41.7</b>
호주	69	148	-79	-0.4	1437	462	976	33.0
뉴질랜드	71	98	-27	-0.1	1	—	1	0.0
<b>유럽</b>	<b>15,223</b>	<b>10,545</b>	<b>4,678</b>	<b>25.8</b>	<b>11,969</b>	<b>10,376</b>	<b>1,593</b>	<b>53.9</b>
독일	2,044	2,114	-70	-0.4	1,829	1,297	532	18.0
영국	2,692	952	1,741	9.6	5,453	4,191	1,262	42.7
프랑스	457	226	231	1.3	461	524	-64	-2.2
네덜란드	2,019	1285	734	4.0	1,511	1,698	-188	-6.4
이탈리아	205	236	-32	-0.2	317	310	7	0.2
벨기에	2,116	1,905	211	1.2	449	711	-262	-8.9
룩셈부르크	3,216	1,316	1,899	10.5	34	118	-84	-2.8
스위스	402	31	371	2.0	836	743	93	3.1
스웨덴	119	96	23	0.1	12	19	-7	-0.2
스페인	20	45	-25	-0.1	88	84	4	0.1
러시아	39	14	25	0.1	—	—	—	—
<b>중동</b>	<b>363</b>	<b>123</b>	<b>240</b>	<b>1.3</b>	<b>53</b>	<b>20</b>	<b>33</b>	<b>1.1</b>
<b>아프리카</b>	<b>720</b>	<b>294</b>	<b>426</b>	<b>2.3</b>	<b>150</b>	<b>—</b>	<b>150</b>	<b>5.1</b>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2년 2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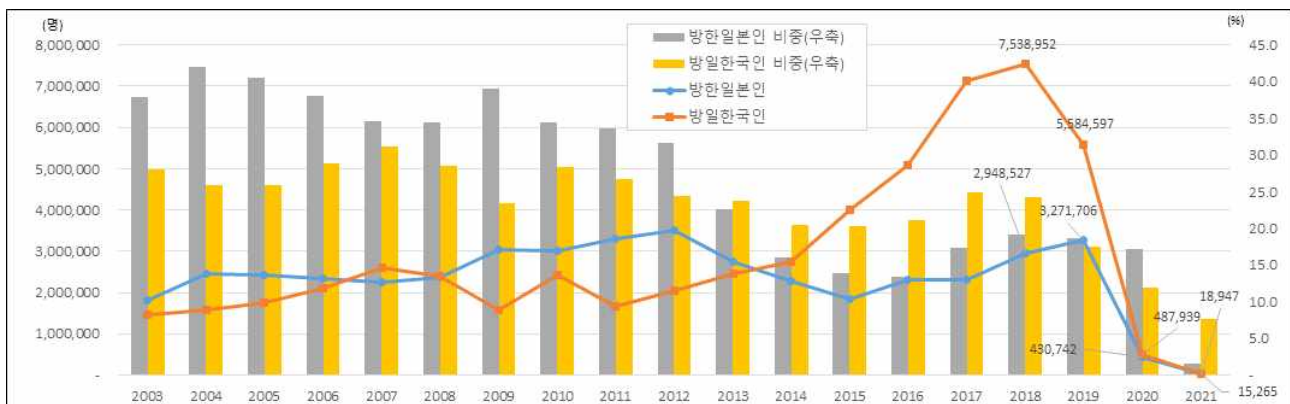
### Ⅲ. 일본 인적교류 동향

####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한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COVID-19 영향으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방일한국인 및 방한일본인 양쪽 모두 크게 감소하였음

<그림6>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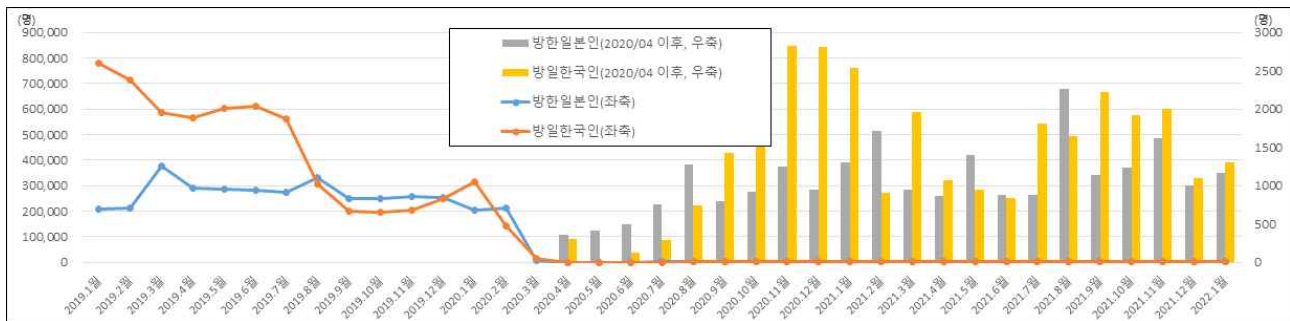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가하여 3,271,706명에 달하였으나, COVID-19 영향으로 2020년에는 430,742명으로, 2021년에는 15,265명으로 감소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2019년 18.7%, 2020년 17.1%에서 2021년에는 1.6%로 감소하였음(방한외국인 총수는 2019년 17,502,756명, 2020년 2,519,118명, 2021년 967,003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7,538,952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감소하여 5,584,597명이 되었고, COVID-19 영향으로 2020년에 487,939명, 2021년에 18,947명으로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방일외국인 총수의 증가에 기인), 2019년 17.5%에서 2020년 11.9%, 2021년에는 7.7%로 감소하였음(방일외국인 총수는 2019년 31,882,049명, 2020년 4,115,828명, 2021년 245,862명)



##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7>은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COVID-19 영향으로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7>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월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한일본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1년 1월 1,299명, 2월 1,719명, 3월 949명, 4월 872명, 5월 1,403명, 6월 875명, 7월 881명, 8월 2,258명, 9월 1,142명, 10월 1,237명, 11월 1,623명, 12월 1,007명, 2022년 1월 1,162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감소 그리고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일한국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1년 1월 2,535명, 2월 910명, 3월 1,956명, 4월 1,076명, 5월 950명, 6월 835명, 7월 1,808명, 8월 1,647명, 9월 2,224명, 10월 1,921명, 11월 2,021명, 12월 1,064명, 2022년 1월 1,300명)

## □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1월 상황

- <표9>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1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교류인원이 COVID-19 영향으로 인해 2019년동월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전년(2021년)동월대비로도 방한일본인 및 방일한국인은 모두 감소하였음



〈표9〉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1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1년1월	2022년1월	증감률		2021년1월	2022년1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58,397	81,851	40.2	전체	46,522	17,800	-61.7
방한 일본인	1,299	1,162	-10.5	방일 한국인	2,535	1,300	-48.7
일본인 비중	2.22	1.42		한국인 비중	5.45	7.30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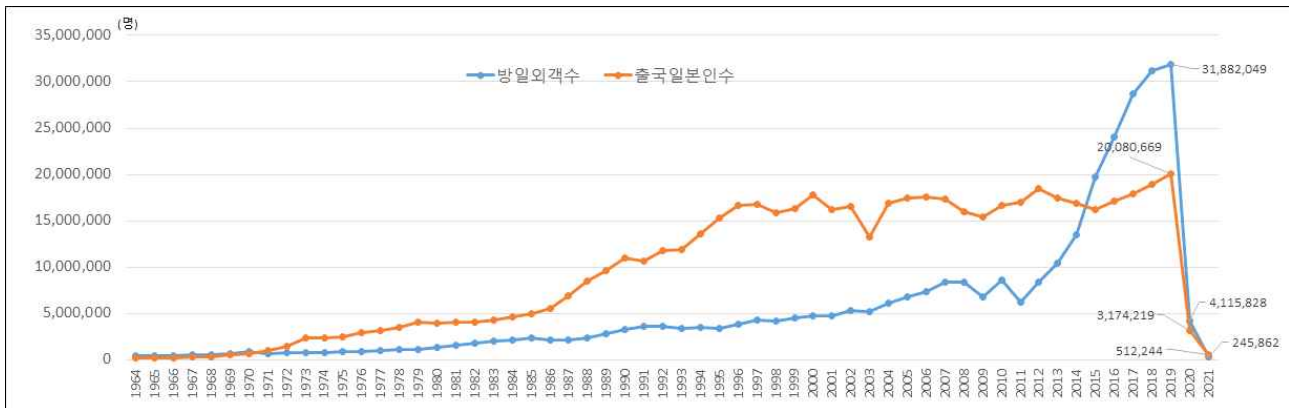
- 2022년 1월 방한외국인(교포 포함) 전체 수는 81,85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2% 증가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1,16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5% 감소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21년 1월 2.22%에서 2022년 1월 1.42%로 감소하였음
- 2022년 1월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17,8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1.7% 감소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1,3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8.7%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21년 1월 5.45%에서 2022년 1월 7.30%로 증가하였음

##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 □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8〉은 일본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이후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1964년 이후 1970년까지는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1971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1971년부터 2014년까지 출국일본인수가 방일외객수를 초월하였으나, 2015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관광객 유치로 인해 방일외객수는 2019년에 31,882,049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출국일본인수 20,080,669명보다 11,801,380명 더 많음
- COVID-19 영향으로 인해 2020년부터 방일외객수와 출국일본인수 모두 감소하였는데, 방일외객수는 2020년 4,115,828명, 2021년 245,862명으로, 출국일본인수는 2020년 3,174,219명, 2021년 512,244명으로 되었음

〈그림8〉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 일본 인적교류의 2022년 1월 상황

- <표10>은 2022년 1월 방일외객수의 국가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전체 수가 COVID-19 영향으로 2019년동월대비로는 크게 감소하였고, 전년(2021년)동월대비로도 감소하였음
- 2022년 1월 방일외객 전체 수는 17,800명으로 2019년동월(2,689,339명)대비 99.3% 감소하였고, 전년동월(46,522명)대비 61.7% 감소하였음
- 방일외객 중 한국인 수는 1,300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48.7%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중국인 수는 1,500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85.3%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대만인 수는 500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15.5%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홍콩인 수는 70명으로 전체의 0.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56.5%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필리핀인 수는 1,000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0.2%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인도인 수는 2,100명으로 전체의 11.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132.0%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미국인 수는 1,800명으로 전체의 10.1%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49.3% 증가한 수치임

〈표 10〉 방일외객수의 2022년 1월 상황

국가·지역	2019년 1월		2021년 1월		2022년 1월		전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전체	2,689,339	100.0	46,522	100.0	17,800	100.0	-99.3	-61.7
한국	779,383	29.0	2,535	5.4	1,300	7.3	-99.8	-48.7
중국	754,421	28.1	10,225	22.0	1,500	8.4	-99.8	-85.3
대만	387,498	14.4	592	1.3	500	2.8	-99.9	-15.5
홍콩	154,292	5.7	161	0.3	70	0.4	-100.0	-56.5
태국	92,649	3.4	719	1.5	400	2.2	-99.6	-44.4
싱가포르	22,676	0.8	85	0.2	70	0.4	-99.7	-17.6
말레이시아	31,399	1.2	242	0.5	200	1.1	-99.4	-17.4
인도네시아	32,477	1.2	922	2.0	500	2.8	-98.5	-45.8
필리핀	35,987	1.3	998	2.1	1,000	5.6	-97.2	0.2
베트남	35,375	1.3	20,032	43.1	400	2.2	-98.9	-98.0
인도	12,468	0.5	905	1.9	2,100	11.8	-83.2	132.0
호주	81,063	3.0	106	0.2	200	1.1	-99.8	88.7
미국	103,191	3.8	1,206	2.6	1,800	10.1	-98.3	49.3
캐나다	22,293	0.8	125	0.3	200	1.1	-99.1	60.0
멕시코	3,615	0.1	56	0.1	100	0.6	-97.2	78.6
영국	21,554	0.8	256	0.6	500	2.8	-97.7	95.3
프랑스	15,320	0.6	554	1.2	700	3.9	-95.4	26.4
독일	11,358	0.4	351	0.8	300	1.7	-97.4	-14.5
이탈리아	6,033	0.2	153	0.3	300	1.7	-95.0	96.1
러시아	4,382	0.2	174	0.4	300	1.7	-93.2	72.4
스페인	6,316	0.2	204	0.4	200	1.1	-96.8	-2.0
중동지역	3,936	0.1	125	0.3	200	1.1	-94.9	60.0
기타	71,653	2.7	5,796	12.5	4,960	27.9	-93.1	-14.4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2년 2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2년 2월 17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1>과 같음

<표11> 일본 주요 경제지표

	2020년	2021년	2021년 4-6월	2021년 7-9월	2021년 10-12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21년 12월	2022년 1월
<GDP> 실질국내총지출(GDP)	-4.5	1.7	7.3	1.2	0.7				
<개인소비> 실질총고용자소득	-1.9	0.9	2.6	1.8	-0.2	0.5	-0.1	-0.6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출하지수(수송기계제외)	-9.5	14.2	22.7	21.1	10.5	10.1	10.9	10.9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증감률	81.5 -9.9	85.6 5.0	86.5 8.1	86.7 7.2	85.5 6.1	87.7 10.4	85.1 3.7	83.8 4.2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5.5	-0.9	11.6	-9.3	-13.9	-14.9	-14.1	-12.3	
<수출입> 수출수량 수입수량	-11.7 -6.4	12.1 P 5.1	34.4 5.1	13.6 7.9	1.3 P 1.4	-2.6 -3.0	4.7 6.1	2.0 P 1.0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10.4	5.8	19.9	5.8	1.2	-4.1	5.1	2.7	
<법인경상이익-재무성> 전체규모-전체산업	-27.3		93.9	35.1					
<도산> 기업도산건수(건) 증감률	7,773 -7.2	6,030 -22.4	1,490 -18.8	1,447 -28.4	1,539 -12.1	525 -15.8	510 -10.3	504 -9.6	452 -4.6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2.8	2.8	2.9	2.8	2.7	2.7	2.8	2.7	
<물가> 국내기업물가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1.2 0.0	4.8 -0.2	4.6 -0.8	6.1 - 0.2	8.8 0.5	8.3 0.1	9.2 0.6	8.7 0.8	P 8.6
<금융> 넷케이평균주가(엔) 환율(엔/\$)	22,705 106.73	28,836 109.89	28,983 109.50	28,553 110.09	28,810 113.70	28,586 113.10	29,370 114.13	28,514 113.87	27,903 114.83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1년 12월, 2022년 1월, 2월 등)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최근 회복에 담보 상태가 보임

- 수요측 통계인 ‘가계조사’ (12월)에서는 실질소비지출은 전월대비 0.1% 증가하였고,

판매측 통계인 ‘상업동태통계’ (12월)에서는 소매업판매액이 전월대비 1.2% 감소하였음

- 실질총고용자소득은 보합권내로 되어 있고, 소비자 심리는 회복 움직임에 답보 상태가 보임
- 최근 상황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면, 신차판매대수는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가전판매는 회복 움직임에 답보 상태가 보임
- 여행은 매우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최근 약세 상태임
- 외식은 최근 약세 상태임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개인소비는 최근 회복 움직임에 답보 상태가 보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감염대책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제사회 활동을 계속해 가는 가운데,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됨

○ 설비투자는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계보(季報)’ (7-9월기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민간설비투자는 2021년 7-9월기에 전기대비 2.6% 감소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기대비 1.7% 감소, 비제조업이 전기대비 3.0% 감소하였음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로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투자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은행 短觀(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12월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2021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短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개선되고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 및 건축공사비 예정액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기업수익의 개선 등을 배경으로 회복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됨

○ 주택건설은 최근 약세 상태임

-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의 착공은 최근 약세 상태임
- 분양주택 착공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총 호수는 12월에 전월대비 1.5% 감소하여 연율 83.8만호로 되었음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당분간 약세 상태로 추이해 갈 것으로 예상됨

○ 공공투자는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약해지고 있음

- 11월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대비 1.0% 감소, 1월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대비 2.4% 감소, 12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월대비 6.7% 감소하였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약세로 추이해 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점차 보정예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이며, 수입은 약세이며,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적자로 나타나고 있음
  -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인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쪽 수출은 약세, 아메리카 및 EU 쪽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 기타 지역 쪽 수출은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감염증에 따른 인바운드 쪽 영향에 관해서는 12월 방일외객수는 2019년 대비 99.5% 감소하였음
  - 수입은 약세인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은 약세, 아메리카 및 EU로부터의 수입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적자로 되어 있는데, 12월 무역수지는 수출금액 감소로 적자폭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이 축소되었음

#### [기업 활동 및 고용]

- 생산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광공업생산지수는 12월에 전월대비 1.0% 감소하였고, 광공업재고지수는 12월에 전월대비 0.1% 증가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1월은 전월대비 5.2% 증가, 2월은 전월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는 회복되고 있고, 생산용 기계는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전자부품·디바이스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외경제동향 및 공급 측면의 제약에 따른 하향 리스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상황에 관해 의견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보면, 제3차 산업 활동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기업 이익은 감염증 영향이 남아 있는 가운데 비제조업의 일부에서 약세가 보이지만 회복되고 있으며,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도산건

수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상장기업의 2021년 10-12월기 결산을 보면, 경상이익은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전년 대비 이익증가로 나타남
  - 기업의 업황 판단에는 회복 움직임이 보임
  - 도산 건수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인데, 12월 504건 이후 1월은 452건으로 나타남
- 고용 상황은 감염증 영향이 남아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약세로 움직이고 있지만, 구인 등에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완전실업률은 12월에 전월대비 0.1% 포인트 하락하여 2.7%로 됨
  - 노동력 인구 및 취업자수는 증가하였고, 완전실업자수는 감소하였음
  - 고용자 수는 보합권내에 있으며, 신규구인 수는 수준은 여전히 낮지만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유효구인배율은 보합권내로 되어 있으며, 제조업 잔업시간은 최근 회복되고 있음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 및 현금급여총액은 보합권내로 되어 있으며, 그 결과 실질총고용자소득은 보합권내로 되어 있음
  - 일본은행 短觀(12월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인원 판단은 부족초과로 나타남
  - 또한 당장의 상황에 관해서는 일일 유효구인건수나 민간의 구인 동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회복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기대됨

#### [물가 및 금융]

- 일본 국내기업물가는 최근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1월 국내기업물가는 전월대비 0.6% 상승하였고, 수입물가(엔 기준)는 최근 상승 속도가 둔화하고 있음
  - 소비자 물가 기조를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최근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보임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2인 이상 세대)’로 살펴보면, 1월에는 전월대비 1.2% 포인트 상승하여 89.7%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당분간 바닥이 견고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하락 후 상승 또 그 이후 하락하였고, 엔/달러 환율은 엔고 후 엔저 방향으로 추이하였음
- 주가는 27,400엔 대에서 26,100엔 대로 하락하였다가 27,600엔 대로 상승하였고, 그 이후 26,800엔 대까지 하락함
- 엔/달러 환율은 114엔 대에서 113엔 대까지 엔고 방향으로 추이한 이후에 115엔 대까지 엔저 방향으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금리는 -0.02% 대에서 -0.01% 대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숙박·음식서비스 등에서는 여전히 엄중함이 보이고 있음
-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는 전년대비 0.6%(1월) 증가하였음
- 머니터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대비 8.4%(1월) 증가하였고, M2는 전년대비 3.6%(1월) 증가하였음

#### □ 일본 정부의 2022년 2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2년 2월 17일)

-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하고,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성장전략의 추진을 위해 노력함
- COVID-19 감염증에 대해서는 2월 10일에 만연방지등중점조치를 13개 도현(都県)에서 연장하고, 1개 현(県)에 추가적용하는 것을 결정하는 등, 36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을 대상으로 그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참고: 이후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됨)
- 또한 오미크론 바이러스 특성을 고려한 신축성이 있는 대책을 한층 강화함
- 학교나 어린이집, 고령자 시설 등에서의 감염방지책의 강화, 임시 의료시설 등의 정비, 1일 100만회 목표를 고려한 백신 3차 접종의 착실한 가속 등에 대해 실행해 나가는 등, 경제사회활동을 최대한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안전·안심을 확보해 나감
- 해외유입 대책에 대해서는 완화를 위한 검토를 진행시켜 나감
- 나아가 경기의 하향 리스크에 충분히 주의하면서 당장의 경제가 지탱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더불어 감염이 재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도 국민의 생활과 고용 및 사업을 지켜내고 경제의 바닥 갈라짐을 방지함
- 또한 ‘새로운 자본주의’를 기동시키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하여 경제를 자

올직한 성장궤도에 올려놓음

- 이를 위해 ‘코로나 극복 및 신시대 개척을 위한 경제대책’ (11월 19일 각의 결정)을 구체화하는 2021년도 보정예산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함과 더불어, 2022년도 예산 및 관련법안의 조기성립에 노력함
  - 또한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동적으로 대응하여 나감
- 일본은행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지원에 만전을 기함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금융완화를 계속하는 조치가 취해져 있음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감염증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금융정책 운영을 실행하여,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을 기대함

※ 참고: 2022년 2월 28일 현재 만연방지등중점조치(まん延防止等重点措置) 상황

실시기간	실시구역
2022년 1월 9일 ~ 2022년 3월 6일	히로시마현
2022년 1월 21일 ~ 2022년 3월 6일	니이가타현, 미에현, 나가사카현, 미야자키현
2022년 1월 21일 ~ 2022년 3월 21일	군마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기후현, 아이치현, 가가와현, 구마모토현
2022년 1월 27일 ~ 2022년 3월 6일	후쿠시마현, 나가노현, 오카야마현, 후쿠오카현, 사가현, 가고시마현
2022년 1월 27일 ~ 2022년 3월 21일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이시카와현, 시즈오카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2022년 2월 5일 ~ 2022년 3월 6일	와카야마현
2022년 2월 12일 ~ 2022년 3월 6일	고치현

출처: 내각관방 홈페이지( <https://corona.go.jp/emergency/> )

##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 □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 구직자 지원제도의 이용요건 완화와 2040년 외국인 노동자 부족 예측
  - COVID-19로 구인이 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비정규 노동자 등의 지원을 위해 급부금을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구직자 지원제도’의 이용 요건을 완화하였음
  - 고용보험의 실업급부를 받지 않는 비정규 노동자의 재취업과 전직 등을 후원하기 위해 2011년 10월에 시작된 구직자 지원제도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전문학교 등에서 PC나 의료사무, 개호복지 등의 훈련을 2주에서 6개월 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조건을 갖추면 생활지원금으로 월 10만 엔이 급부됨
  - 그러나 구직자 지원제도의 이용은 저조한데, 제도의 인지도가 낮은 것 외에도 급부금의 수급요건이 엄격한 점이 이유로 지적되어 왔음
  - 이에 후생노동성은 훈련 결석을 이유와 관계없이 20%까지 인정하고, 세대수입의 상한액을 월 25만 엔에서 45만 엔 이하로 인상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였음
  - 작년부터는 쌍방향 온라인과 e러닝 훈련을 시작했고, 야간, 주말코스, 탁아포함 코스를 설치한 훈련시설 등도 있으나 아직 일부에 머물고 있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음
  - 한편,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와 일본정책투자은행 그룹의 가치종합연구소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에 관한 장기적인 시산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를 공표함
  - 2040년 국내총생산 목표를 2015년 대비 36% 증가한 704조 엔으로 설정하고, 노동 인구 감소와 자동화 등의 설비투자가 촉진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일본에 주로 노동자를 보내고 있는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13개국의 인구동태, 경제성장률, 일본 방문 외국인의 체류연수 평균 등을 분석함
  -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2021년 10월 말 시점 일본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약 172만 7천 명이며, 연구에 의하면 2040년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현재의 약 4배인 674만 명이 필요하며, 현재의 수용 방식으로는 42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음
  - 일본에 주로 노동자를 보내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과 저출산으로 노동자 획득 경쟁의 격화가 예상된다고 함

## ○ ‘엔’ 구매력 약화 및 스타트업 성장 촉진

- 통화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실효 환율’에서 엔이 반세기 만에 낮은 수준이 되었음
  - \* 실질 실효 환율: 약 60개국·지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각각의 통화의 종합력을 나타낸 것으로 수치가 낮을 경우 기준연도의 기준점을 100이라고 할 때 100 미만이면 해당화폐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국제결제은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본은행이 2월 22일 산출한 2022년 1월의 수치(2010년=100)는 67.55로 엔저가 진행되고 있던 2015년 6월을 밑돌아 1972년 6월 이래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요인으로는 미국, 유럽과 일본과의 금융정책 차이에 따른 엔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미국과 유럽은 COVID-19 후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 등 금융긴축을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금융완화를 계속할 방침으로 금리차이가 확대되었음
- 또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물가가 대폭 올라가면서 해외에서의 엔화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저수준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수입품의 가격 상승으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음
- 일본 정부는 2월 21일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 조사회를 발족했음
- 일본 내 스타트업 투자액은 2021년 0.8조 엔으로 36조 엔인 미국과 비교하면 적고, 스타트업을 포함한 벤처기업 투자액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도 다른 나라보다 낮음
- 조사회에서는 일본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는 기관투자가가 적고, 스타트업에 투자가 모이기 어려운 현상의 개선책에 대해 논의하며, 비상장 스타트업주 등의 거래 자유도를 높이는 방안도 의제가 됨

(출처: 아사히신문, 2022.02.04., 2022.02.23.; 닛케이신문, 2022.02.21.; 요미우리신문, 2022.02.23.)

## □ 일본정부의 경제안전보장 정책

## ○ 경제 안전보장 강화 방안

- 경제정책에 안전 보장의 관점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임
- 반도체나 전지 같은 중요 물자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공급망의 다양화를 촉구하며, 전력, 통신, 방송 등의 인프라 기업의 설비 도입 시 조달처의

신뢰성을 국가가 심사함

- 또한, 첨단기술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시책도 담길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 연구 개발에 공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군사 기술 등의 특허를 비공개로 하는 구조를 마련해 민감한 정보의 유출을 막음
- 특정 국가나 지역에 조달을 의존하는 리스크는 COVID-19 사태로 인해 의료품 등이 부족한 것에서도 드러났으며, IT 인프라를 지키는 대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 한편, 일본 정부는 방위 산업으로부터의 철수를 검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부품 설계도 등을 일단 매입하고, 기술력을 가진 다른 국내 기업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경제 안전 보장 강화책의 일환으로서 추진할 방침임
- 방산업체가 철수 시에 장비품의 설계도 같은 지적재산이 유출되거나 기업 자체가 해외의 기업에 매수되거나 하면 안보상의 위협이 되기 때문으로 원활한 사업 승계를 정부가 지원하여 방위를 둘러싼 일본 국내 산업 기반의 보호로 연결하고자 함
- 신제도에서는 방위산업에서 철수하기 전에 기업이 설계도를 제출해 방위성이 기밀성이나 희소성을 검사하고,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과 상담해 매입액을 결정하게 됨
- 양도처는 방위성과 거래가 있는 국내 기업에서 선택하며, 제조 방법도 원래 기업의 담당자를 소개해 양도처에 전수하도록 함
-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세제 우대나 보조금의 신청 수속을 정부가 돕고,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으로 기업이 승계를 검토하지 않고 폐업하는 것을 막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국내에서 조달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유지 방법을 찾고자 함
- 또한, 경제안전보장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경찰은 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스파이 방식 등을 설명하고 개별상담에도 응하는 등의 방문지원 활동을 전개함

(출처: 마이니치신문, 2022.02.10.; 닛케이신문, 2022.02.21.; 산케이신문, 2022.02.21.)

###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 □ 에너지산업과 탈탄소산업

##### ○ 일본의 에너지산업 동향

-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가 고온가스로인 HTTR로 실시한 국제 공동실험 결과 전원

이 나가더라도 원자로 용융이 일어나지 않는 등 안전성이 실증되었음

- 기존의 원자력발전은 높은 편의성을 가진 반면 큰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위험성이 우려되어 왔으며, 이 점이 일본 국내에서는 재가동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함
- 또한, 원자력기구는 2022년부터 HTTR의 1,000도에 가까운 고온을 이용한 수소제조 시설 설계에 착수할 계획으로 처음에는 천연가스로 수소를 만들며, 다음 단계에서 요소, 유황, 물만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수소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진행할 계획임
-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실질 제로를 목표로 한 일본 정부의 그린성장전략은 해상풍력발전을 주력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데, 204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40기 정도에 해당하는 3,000만~4,500만 키로와트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2021년 말, 치바현 조시시 앞바다와 아키타현 앞바다 2개 해역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미쓰비시상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연합을 선정했는데, 미쓰비시상사 진영은 다른 진영보다 1키로와트 시간당 최대 14엔 가까이 저렴한 입찰가격을 제시했음
- 미쓰비시상사의 저렴한 가격 요인은 발전시설의 설계부터 건설, 운용, 보수까지 전공정의 리스크를 세부까지 확인해서 효율화를 철저히 한 노하우에 있음
- 에너지 사업을 수행하는 상사는 해외 안전에 인재를 파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미쓰비시 상사의 경우 2010년대 초반부터 서구의 해상풍력발전 7개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직원에서 경험을 축적시켰음
-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둘러싸고 관민협의회에서 검토가 진행되어, 2040년까지 일본 국내기업으로부터의 부품 등의 조달 비율을 6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해상풍력발전의 건설부터 보수까지 많은 일본 국내기업들이 관여하도록 하여 경제성장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임
- 그러나 일본에서는 얕은 바다가 적고, 강한 바람이 부는 해역도 한정되어있다는 지적이 있음

#### ○ 일본기업의 탈탄소산업 동향

- 오사카부가 신설하는 탈탄소 기술개발에 대한 보조 제도에 대해,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이 사업비인 5억 엔을 전액 기부하는 것으로 2월 20일 알려짐
- 오사카부의 보조 제도는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어, 탈탄소 사회를 향한 새로운 기술의 시작(試作) 개발 및 실증 실험의 실시 등을 지원함
- 보조 대상은 공모를 할 예정으로 대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신기술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벤처기업의 지원에도 연결함



- 미쓰비시UFJ는 이번 기부를 통해 탈탄소 사회 실현 및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한 신산업 창출에 대한 지원 자세를 밝힐 생각임
- 또한, 2021년 오사카부에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버스의 도입을 위한 기부도 하고 있으며, 오사카부 내에서 기술혁신 지원 거점을 개설하는 등 오사카에서의 대처를 강화하고 있음
-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감탄소에서 탈탄소로 크게 전환되었음
- 2021년 10월에 결정한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2030년도 전원 구성으로서 재생 가능 에너지 36~38%, 원자력 20~22%, 화석연료 41% 등을 제시하였음
- 에너지 확보와 카본 뉴트럴의 양립을 위해서 안정적이고 염가의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함
-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은 자급만이 아니라, 위기 시에도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에너지 공급체제를 다층적으로 구성해 강인성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함

(출처: 산케이신문, 2022.02.04., 2022.02.21.; 닛케이신문, 2022.02.23., 요미우리신문, 2022.02.04.)

## □ 자동차산업과 DX

### ○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재활용 기술 개발

- 포드는 2021년 한국 SK이노베이션과 미국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에서 2025년 가동 예정인 전지 신공장에서 제조시에 나오는 폐전지 등을 재활용하는 구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음
- 전지 재활용을 담당하는 것은 미국 레드우드머티리얼즈인데, 동사는 사용이 끝난 EV전지에 남아있는 에너지를 사용해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음
- 파나소닉은 1월에 레드우드머티리얼즈와 제휴하여 회수한 재료를 사용한 EV전지의 생산을 2022년 중에 시작한다고 발표했음
- 일본의 JX금속은 차재전지의 리사이클 기술을 개발하는 자회사를 신설하여 사업화를 향한 생산 기술개발이나 실증 시험 등을 시작했음
- 닛산자동차와 스미토모상사는 2021년 12월 공동으로 EV전지를 지자체나 가정용 축전지로서 재이용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음



##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재 육성

- 일본 기업들은 업무 효율화나 신서비스의 개발로 이어지도록 디지털 인재의 육성을 서두르고 있음
- 도쿄전력홀딩스는 그룹 주요 5개사에서 사원의 20%를 디지털 인재로 육성하는 목표를 세울 방침으로 대형 설비를 사용하는 전력회사는 효율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큼
- 아사히화성은 2023년까지 그룹 전체 4만 명을 디지털 인재로 육성할 계획임
- JFE스틸은 생산 현장 디지털화의 추진 주역으로는 공정을 숙지하는 사원이 적임이라고 하여 사내 육성을 강화하고 있음
- 미쓰비시UFJ은행과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모든 직원이 디지털 분야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음
- IT 기업인 야후의 경우에는 2023년도까지 영업 등을 포함한 전사원 약 8,000명이 업무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총무성의 조사에 의하면 디지털화의 과제로서 인재 부족을 든 경우가 53%에 이르렀음
- 제국데이터뱅크의 조사에 의하면 사이타마현 내에서 디지털기술의 활용으로 업무와 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DX(Digital Transformation)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11%에 머물고 있었음
- 현내 기업 415사가 응답한 조사에서 DX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기업은 70%였으며,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한 11% 기업들의 경우 금융, 소매업, 서비스업의 업종이 상위에 있었으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음
- 그러나 기존제품과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비즈니스모델의 변혁 등 본격적인 DX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음
-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의 과반수는 DX의 과제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가 없다’, ‘필요한 스킬이나 노하우가 없다’를 이유로 들었음

(출처: 요미우리신문, 2022.02.21., 2022.02.23.; 닛케이신문, 2021.02.04.)